

-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20일 일요일 16시30분, 아주대학교
- 보건의료학생 매듭 (촉진자: 아샤, 푸우씨, 재현)
- 정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목정민, 신유나, 정라영

1번. 세월호를 생각했을 때 느끼는 감정

- 화가난다, 답답하다 : 기사를 보면서 화가 났다.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일까? 왜 당사자의 이야기를 안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화가 나고 답답했다.
- 부끄러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분향소를 가지 않아 부끄럽다.
- 답답함 : 내가 고3일 때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수업을 듣다 잠깐 인터넷을 켜올 때 처음 소식을 접했다. 고등학생인 나는 분향소를 가는 것 밖에 할 수 없었고, 무력감을 느꼈다.
- 공감 : 세월호의 학생들도 나와 같은 고등학생이었고 나도 얼마 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시기라 공감이 갔다.
- 짜증 : 정말 짜증났다. 소설 도가니를 읽다가 짜증나서 집어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를 보면서 이런 감정이 들었다.
- 미안함 : 아이들보다 먼저 산 사람으로서 미안함을 느꼈다. 애도를 표하기도 힘든 현실에 죽음을 외면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가족 분들에게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 혐오, 지친다 : 사람들이 그만 이야기하라고 말을 한다. 얼마 전 HOT의 '아이야'라는 노래를 들었다. 씨랜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딴 노래이다. 여기에 나오는 "피우지도 못한 아이들의 불꽃을 꺼버리게 누가 허락 했는가"라는 가사를 들으며 지금과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대중가요에서 이런 노래를 하였는데 이조차 지금과 다르다. 세상이 더 팍팍해졌음을 느낀다.
- 슬픔, 실망 : 사고 후에 슬픔을 느꼈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실망했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도 바뀌지 않는 상황과, 그저 냄비현상에 불과한 현실. 해결보다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
- 분노, 답답함, 어이없음 : 세월호를 구조하는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하지? 민간잠수부들은 왜 막지?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다.
- 처음에 속지 말라고 저거 쇼라고 그랬다. 근데 왜 전원 구조 되었다고 말했다가 구조하지 못했다고 했지? 도대체 왜? 의문밖에 안 들었다.
- 이렇게 세월호를 되새기며 왜 우리가 운동을 계속해야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 처음에 세월호 참사 얘기를 들었을 때, 수업 중이었다. 장난 하는 건가 못 믿기도 하였다. 전원구조 보도가 떴을 때, 다행이다 생각했으나, 오보라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다.
- 언니랑 같이 분향소에 같이 갔는데, 정말 안타까웠다. 그런데 언니는 '너무 질질 꼬는 거 아닌가.' 라고 말했었다.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었다.
- 4월 16일 늦잠을 자서, 처음부터 접하지 못했다. 전원구조라는 보도를 보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페이스북 등으로 진척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다.

- 토요일이 시험이라, 밥 먹으러 가는 중에 알았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았다. 상상을 할 수 없었다.
- 핸드폰으로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보고, 휴학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세월호 뉴스를 지켜보았다. 언론과 정부 모두가 정신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빨리 성과를 내는 데에만 보도나 구조가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 실습을 돌면서 환자 혈압을 재주고 있었는데, TV에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 안타까웠다. 그러나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뒤서, 어떤 사태인지 계속 파악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었다.
- 그 당시 고3이었는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다. 그래서 늦게 소식을 접했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당황했다. 희생된 다수의 학생이 나의 또래였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안타까웠고, 안절부절 못했다.
- 두려움 :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었다. 내 가족에게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안타까움 : 무능한 정부 때문에, 또 잘못된 체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깝다.
- 막연함 : 사건은 반복되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 인지를 모르겠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나아가야 할지 막연했다.
- 닫힌 느낌 : 외부의 구조인력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 희생자들, 유가족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는 정부, 침몰한 세월호 안에 갇힌 사람들 등 여러 면에서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 준 느낌은 닫혔다는 것이다. '세월호'라는 타이틀 만으로도 "또야?"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일쑤고 이 또한 정치적으로 닫힌 느낌을 주었다.

2. 이건 아니다 하는 사건

- 왜 못 구했는가? 정부의 미숙함이 티가 났다. 유가족과 팽목항에 같이 갔는데도 유가족들을 무시하던 행태
- 거짓말 : 전원구조라고 거짓말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 대통령이 도망감 : 굉장하시다
- 일베행위 : 굉장했다.
- 공감능력 : 감수성이 부재하다. 명예훼손한 사람이 분향소 현장을 돌며 다신 안 하겠다고 울었다고 들었다. 편하게 남을 욕하는 것, 피해자를 욕하는 것의 일반화를 보며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고민스러웠다.
- 안전할 권리 없이 처벌만 급급한 행태 : 외국에서 총기난사사건을 기리는 공모전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많은 예산이 드는 안이 당선되었다. 그 나라는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대로 당선작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기억하는 것조차 못하게 내댈다.
- 국민태도변화 : 초기 세월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돌변한 것을 보았다. 잘못된 정부에 있는데 이만하면 그만할 때 되지 않냐고 묻는 것을 보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 언론플레이 : 유명인 사망, 단원고 특전을 주 보도사항으로 내보낸 것
- 책임부재 : 세월호 침몰이 누구의 책임인지 묻기에 앞서 떠넘기기만 급급한 행태
- 방관 : 구조하는 과정에서 방관하고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도 방관하는 사람들

- 은폐 : 진실을 은폐하고 침묵하는 것
- 비방 : 어떻게 비방할 수 있지?
- 당사자에 대한 모욕 : 집회에서 유가족들이 갈혀있던 적이 있다. 화장실도 못가서 스티로폼에 웅변 보는 모습을 보고 어디까지 모욕할건지 분노했다. 산사람은 살아야지라며 생존을 중시하는데 구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물음표만 떠다닌다. 권리의 주체 권리행사 할 때 비방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투표이다. 일상에서는 권리주체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도 안한다.
- 참사의 본질을 흐리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한 사람, 혹은 한 측면 -유병언 등-만 부각하고, 유가족 보상문제만 계속 언급, 왜곡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대화에서 중요한 얘기를 비껴가는 모습이 너무 싫었다.
- 일베 사람들이 실험단식, 라면 먹기 등 유가족 등을 조롱하는 장면이 너무 혐오스러웠다. 또한 유가족을 외면하고,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는 정부의 모습이 싫었다.
- 진상규명 해야 하는데 참사가 일어난 지 500일도 더 넘게 가니까, 피로감 같은 것이나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 느껴졌다.
- 세월호라는 사건을 왜 계속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같은 다른 사고와 비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서 다 같이 깎아내리는 모습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 같아서 싫었고 아쉬웠다.
- 영원이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월호냐? 라고 말을 바꿀 때, 그리고 세월호가 핵 폐기물을 싣고 가던 배였다드니 등 이상한 뜬 소문이 퍼질 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
- 얼마 전 안산에서 세월호 500일 추모 문화제가 있었다. 그 문화제가 끝난 후 정부에서 유가족에게 문자가 왔었다고 한다.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세월호는 돈의 문제가 아닌데, 계속 돈의 문제로 취급해버리고, 빨리 해결해버리려는 태도가 싫었다.
- 왜 특별법 등을 만들 때 정부가 유가족의 반대편에 서서, 서로 충돌하면서 타협해나가야만 했는가, 그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부와 유가족이 힘을 합쳐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하는데, 왜 반대 측의 입장에 서서,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는지 짜증났다.
- 일베 :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거나 SNS등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많았다. 이들의 모습이 대체 왜 생기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
- 보여주기식 대안(해경해체, 홍가혜씨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애꿎은 해경을 해체한다. 이번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이다. 말도 안되는 방안을 해결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
- 끊이지 않는 사고 :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 허무감을 느꼈다. 분명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 다른 사건사고들처럼 세월호 사건도 많은 부분에서 간과했다.
- 뉴스오보 : 세월호 사건이 터진 그날에서 뉴스보도는 계속 바뀌었다. 처음엔 전 원구조라더니 그 다음엔 300명 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뉴스... 정확성과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뉴스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
-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태도 : 세월호 사건이 있고 일년 넘게 지난 지금, 세월호 사건이 정치화가 되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된 정치화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지나치게 정치화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만으로도 색안경을 낀 시선을 많이 느꼈다. 노란리본을 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3. 2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 요구

- 연대할 권리 : 추모하는건 좋은데 왜 시위하냐라는 말들. 연대를 안 해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못하는구나.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우선시 :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들. 작업중지권이라도 있었으면 피할 수 있던 사고. 먹고사는 고용문제. 귀족노동자라고 말하는 현대차 노동자조차 추락사고를 경험한다. 여기에 회사는 안다쳤으니 안전사고 아니라는 말을 한다. 이에 투쟁하자 손해배상당하는 현실. 기존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권리행사 주체로서 모두가 나와야 한다. 어떤 사람은 혁명할 권리도 이야기했다. 한번도 연대 안해본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연대할 권리를 생각하게 한다.
- 진실을 알 권리 : 언론통제를 보며 진실을 알려도 안 알려도 욕먹는데 그냥 알려주지. 얼토당토않은 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모습. 진실을 알고싶어요.
- 정보접근권 : 수사기록 같은 것 분명 존재할 텐데 왜 볼 수 없다.
- 안전권 : 안전하게 살 권리가 없기에 발생한 사고
- 위로 받을 권리, 위로 할 권리 :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 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 위로 할 권리조차 없다.
-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 이것이 훼손되었기에 나타난 문제. 국가든 사회든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건 지켜줘야 함. 인권은 최저하한선.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왜곡되어 이상향이 되는 전도된 모습
- 알 권리 : 앞에서 이야기해서 생략하겠습니다.
- 또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든 어떤 누구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역시 필요하다.
- 요즘 노란리본을 매고 다니면 빨갱이, 종북이란 시선을 많이 받는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 후세대 등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전해들을 것인가, 올바른 얘기를 들을 권리가 필요하다. 교육까지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세월호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고 및 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할 권리가 필요하다. 그 접근방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 다른 사고를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시행령 등으로 방해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 현재도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유가족, 참사의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출하고, 하나의 여론으로 만들어 공론화시킬 권리가 필요하다.
- 용기내기 : 세월호를 대하는 방안들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또한 세월호라는 사건의 언급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실망시킬까봐, 또 얘기할 꺼낼 때 상대방의 반응이 실망스러워질까봐 피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섭다.
-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 누가 봐도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 비밀 없는 사회 : 매체마다 말이 달라서 제대로 알 수 조차 없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진실을 몰라 무관심해 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비밀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
- 여유로운 사회, 공감하는 사회 : 일상생활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면 어

떨까 한다. 물론 경쟁하는 사회에서 쉽지 않겠지만, 척박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안전할 권리 :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